■ 한·EU FTA 협상 시작

"EU産 술·낙농품·돼지고기 위협적"

한국 시장 보다 경쟁력 월등

민감 품목 예외 협상력 발휘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EU산 수입 포도주·위스키·낙농품·돼지고기 등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EU가 과거 칠레나 멕시코와의 양자간 협력협정 또는 FTA에서 상당수의 농축산물 민감품목에 대해 개방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는만큼, 협상력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됐다.

◇EU 경쟁력은 위스키·포도주가 으뜸=농협경제연구소는 이날 'EU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별비교우위(CAC) 지수 분석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CAC 지수는 수입 금액 및 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 나라의 특정 수출품목이 다른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는지 측정한 지표로, 1보다 높을수록 경쟁력이 크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5년 기준 EU 농산물과 축산물의 대(對)한국 CAC지수는 각각 평균 1.06, 1.50으로 집계됐다.

세부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운데 위스키·포도주 등 주류가 6.80으로 가장 높았고, 식품가공원료로 사용되는 효모류(5.12)나 식물성액즙(3.15), 코코아류(3.048), 감자전분 등 전분류(4.79), 음료(4.09), 화훼류(2.78) 등의 우위도 두드러졌다. 축산물 중에서는 닭 등 가금류가 6.05로 1위였고, 낙농품(2.76), 가금육류(1.69), 돼지고기 등 포유가축 육류(1.37) 등도 기준지수인 1을 웃돌았다.

◇국내 돼지고기·낙농품 등 영향 클 듯=전체 품목 가운데 CAC 지수가 가장 높은 주류의 경우 현재 들어오는 EU산 술의 80%는 위스키, 나머지가 포도주다. 2005년 기준 2억2천585만달러어치 위스키와 3천777만달러어치 와인이 EU로부터 수입됐다. 현행 20~30% 수준인 주류 관세가 FTA로 철폐되면 수입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류와 관련해서는 지리적 표시제 도입 여부도 관심사다. 지리적 표시는 '보르도' 와인, '스카치' 위스키처럼 지리적 명칭을 가진 상품의 지재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CAC 지수가 1.37인 포유가축 육류의 경우 광우병으로 EU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냉동삼겹살 중심으로 돼지고기만 들어오고 있다. 2005년 기준 EU산 냉동삼겹살 수입량은 5만3천t으로 수입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가금육류의 6년간 CAC 지수 평균은 1.69지만, 2004년과 2005년은 각각 5.65, 4.11로 치솟았다. 2003년을 전후로 미국과 태국 등 닭고기 수출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덴마크로부터 냉동 닭다리 및 닭날개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격 측면에서도 관세철폐를 가정한 2003~2005년 EU산 냉동삼겹살 수입가는 1kg당 평균 3천548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산의 45% 수준에 불과하고, EU산 냉동 닭다리와 탈지분유의 수입가격도 각각 국산의 43%, 31% 수준에 그쳐 한·EU FTA가 타결되면 낙농품을 포함한 축산물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민감품목 개방 예외인정에 주력해야=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난 칠레 멕시코와의 FTA에서 많은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품목의 경우 역시 다양한 양허방식을 도입했다.

2003년부터 발효된 칠레와의 협력협정에서 EU는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가금육·유제품·계란·과일 및 채소 등을 예외 품목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칠레의 유제품·콩·밀가루·식물유지·마가린·설탕 등도 개방대상에서 빼줬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EU는 소·쇠고기·돼지고기·가금육·유제품·계란·꿀·절화류 등을 양허(개방) 대상에 넣지 않고 멕시코의 소·쇠고기·돼지고기·가금육·유제품·계란·감자·바나나·메밀 제외한 곡물·볶은커피·설탕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급을 인정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세금 잘 내는 법인은 세무조사 9년에 한 번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가 현행 4~7년에서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3~9년으로 차별화 된다.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별관리 대상자의 세무조사 선정비율은 높아진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7일 밝혔다.

자문위는 세무조사 선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 등 9명으로 작년 9월 구성한 국세청 자문기구로, 이번이 두번째 회의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사업 규모별로 4~7년 주기로 벌이는 법인 정기조사를 직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 판명된 성실 신고 수준에 따라 1~2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 신고 사업자나 법인은 짧으면 3년 주기로 조사를 받고 성실 신고 사업자나 법인은 최장 9년에 한번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 분석 결과에 따라 가변적인 만큼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전체 소득세 관련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 개별관리 대상자의 비율을 종전 20%에서 올해는 30%로 높이고 간편장부 신고자의 비율은 종전 20%에서 내년부터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와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나 무자료 거래를 막기 위해 자료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우농가 90%"출하·입식 예정대로"

美 쇠고기 수입 충격 회복

국내 한우 농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심리적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어 조만간 한우 가격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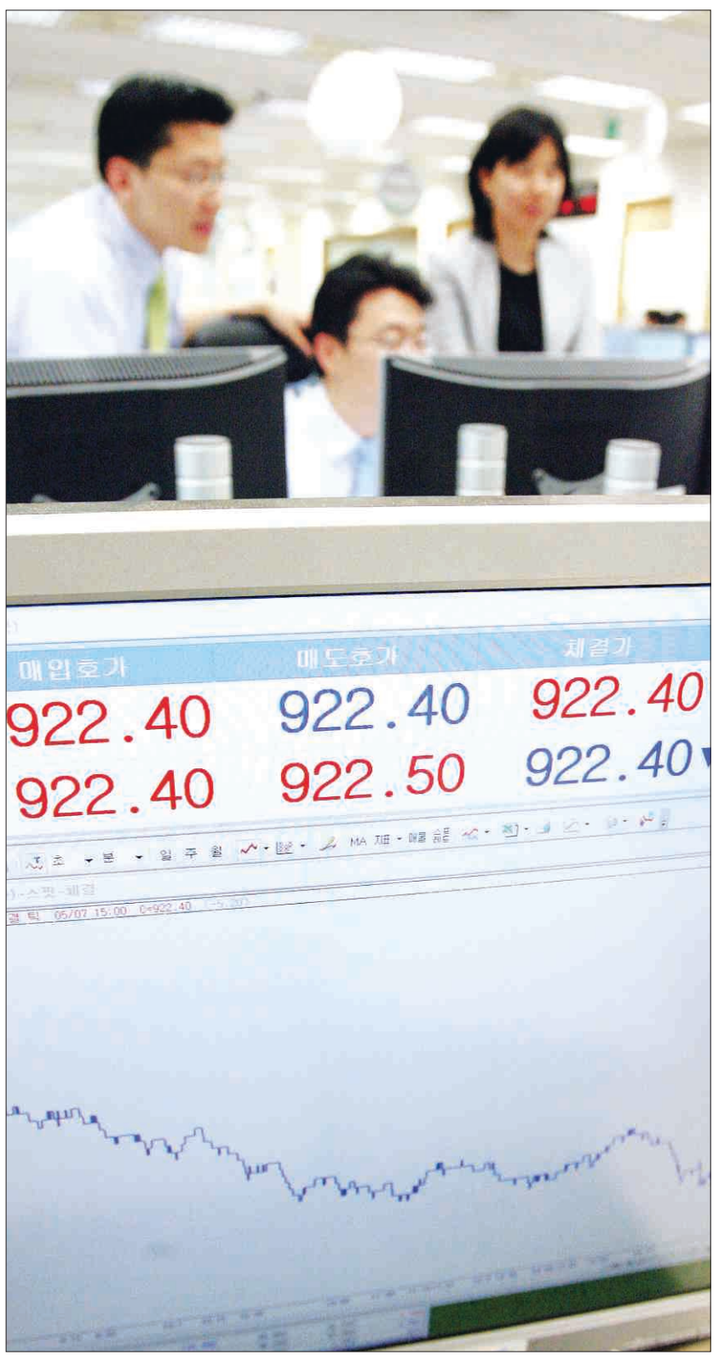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7일 공개한 '최근 소값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699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전화 설문조사 결과, '한미 FTA로 암·수소, 암·수송아지 출하나 입식(키우기 위해 매입) 계획을 바꿀 의향이 있나'는 질문에 80~90% 이상의 농가가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암소와 수소 출하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각각 92.8%, 95.7%였고, 83.6%와 84.7%의 농가는 각각 암송아지 및 수송아지 입식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송아지의 경우 입식 일정을 바꾸겠다고 답한 농가 가운데서도 '입식을 앞당기겠다'는 농가 비율(암 12.9%, 수 12.4%)이 '시기를 늦추겠다'(암 3.5%, 수 2.8%)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구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조사 시점이 4월말~5월초라 FTA로 인한 조기 출하가 이미 많이 줄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불안 심리도 많이 약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조만간 입식 수요가 다소 늘어 향후 송아지값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30대 장수기업' 평균 51.9세

주력사업 시장 지배력 1위·R&D 투자비율 높아

수십년간 업계 수위를 지키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장수(長壽)기업'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중소기업청은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수립의 일환으로 서울대 경영대 조동성 교수팀에 '장수기업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30개 장수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경영특성을 분석, 7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우선 30년 이상 존속한 국내기업 중 업력의 80% 이상 기간동안 지속적인 흑자를 낸 기업을 추린 뒤 다시 최근 15년간 매출성장을 지속한 기업을 산업별로 뽑았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포스코·LG상사·대림산업·동국제강·제일모직·CJ·한국타이어·한솔제지·삼양사·유한양행·경방·동화약품 등 15개 기업이 꼽혔다.

중소기업 중에서는 대한제강·에스엘·삼영무역·경농·캠브리지·삼호개발·무학·한국쉘석유·수출포장·인팩·삼일제약·유유·행남자기·유니모테크·부산방직 등이었다. 최종 선정된 30개 기업의 평균 수명은 51.9년이었으며 대기업은 59.3년, 중소기업은 45.7년이었다.

연구팀이 증권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종합주가지수는 698(1997년 2월1일)에서 1422(2007년 2월1일)로 103.7% 증가했으나 30대 장수기업의 동기간 평균 주가상승률은 291.1%에 달했다. 상장기업 전체 평균 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장수기업 중 대기업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414.8%, 중소기업은 146.8%였다. 이들 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해 2005년 기준으로 상장기업 전체 매출의 26%, 총 이익의 40%를 30개 장수기업이 담당하고 있었다.

장수기업들은 현대차·포스코·SK·삼성전자·한국타이어·한솔제지 등 주력 사업분야에서 줄곧 업계 1위를 차지하며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창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력사업이나 제품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R&D 투자비율이 동종업계에 비해 높은 편으로 주력산업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리콜 대상 車 44.5% 수리 안받아

'거리의 시한 폭탄'…사고 위험

리콜 명령을 받고도 수리를 받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가 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리콜성 무상수리를 뺀 자발적 또는 강제 리콜 시정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상 차량은 12만5천460대 가운데 리콜 수리에 응한 자동차는 6만9천646대로 전체의 55.5%에 머물렀다.

즉 지난해 리콜 대상 차량 10대 중 4대 이상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 자동차를 버젓이 몰고 도로를 누비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리콜 시정률 55.5%는 2005년 리콜 대상 차량 85만2천172대 가운데 65만8천347대가 수리에 77.2%의 시정률을 보였던 것에 비해 크게 나빠진 것이다.

지난해 리콜 시정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산차는 21종, 11만7천867대가 리콜 명령을 받아 55.9%(6만5천853대)가 수리를 받았고 외제차는 41종, 7천593대 가운데 50%인 3천793대가 리콜에 응했다.

차종별로는 버스의 리콜 시정률이 가장 낮았는데, 지난해 6월 19일 리콜된 기아차[000270]의 그랜버드선샤인은 해당 차량 537대 가운데 리콜 수리를 받은 차가 1대에 불과해 시정률이 0.2%에 그쳤다.

승용차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22일 리콜된 지엠대우의 뉴마티즈는 1만7천962대 가운데 447대만 수리받아 시정률이 2.5%에 그치기도 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922.40원…5개월만에 최저

7일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달러당 5.20원 급락한 922.4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SC 제일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환율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 "시중유동성 증가율 4년만에 최고"

시중유동성 증가율이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3월 시중유동성 증가율은 일부 예금취급기관의 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이 크게 늘어나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주식형 펀드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4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광의유동성(L) 동향'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광의유동성 잔액은 1천875조8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7조5천억원(0.9%) 증가했다.

시중유동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하다가 올해 1월 부동산 대출규제와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한달 만인 2월부터 정부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3월 시중유동성 증가율은 특히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3%나 급증해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003년 2월의 12.9% 이후 4년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년 동월 대비 유동성 증가율은 작년 9월과 10월 10.1%, 11월 10.3%, 12월 11.2%에서 올해 1월 11.1%로 소폭 둔화했다가 2월 11.3%를 기록하는 등 7개월째 두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시중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늘어났기때문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하나로플러스인베스트먼트	판매관리직 및 판매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0	062-611-7511
ING생명-본사	[광주본사공채 상담원] 홈쇼핑방송 상품안내	고졸/경력무관	2800~3000	05/10	02-3452-2612
세신전자㈜ 장성공장	경리/회계 업무 담당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0	061-394-4477
㈜HRN	[동시모집]SK텔레콤 여비서직/114상담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1	062-529-2671
광주서광교회	내근직 사무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1	062-251-5005
대호전기㈜	회계담당자 채용	대졸/경력5년	3000~3200	05/12	062-528-6161
㈜오리온	[광주] 업무담당(물류관리)/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2	062-373-2391
선진복합운송창고㈜	물류관리직 채용	대졸/경력무관	1600~1800	05/12	062-951-0433
㈜대진환경산업	토목기사 및 토목산업기사 (캐드가능자) 채용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5/15	062-710-5992
㈜유경하이테크	삼성전자 납품담당 영업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7	062-956-8454
글로벌광통신㈜	해외영업팀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7	062-605-9744
호텔 프라도	[프라도 호텔] 관리직 사원	대졸/경력무관	1600~1800	05/20	062-654-6600
대우캐피탈 광주전남	2007년 분야별 정규 영업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0	062-524-6900
㈜필코스메틱	쇼핑몰 운영 및 웹 디자인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5/20	062-267-807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중소·중견기업 채용부족률 44.4%

인크루트 조사

작년에 직원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들은 필요한 인원보다 44.4% 가량이나 부족한 인원밖에 뽑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사취업 전문기업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모두 186개 기업을 상대로 2006년도 채용 계획인원 대비 입사 1년 이내 퇴사 인원 등 부족 인원 비율인 '채용부족률'을 조사한 결과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44.4%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작년 한해 중견·중소기업이 채용을 계획했던 인원 수의 55.6%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채용부족률 평균은 23.5%로 집계됐으며 조사대상 기업 중 대기업 평균은 7.8%로 인력 수급상황이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코카콜라 '어고 그립' 페트 출시

한국 코카콜라(www.cocacola.co.kr)가 야외활동의 증가에 맞춰 이동 고객을 위한 '어고 그립(Ergo Grip)' 페트를 출시했다.

어고 그립은 '어고노믹 그립(Ergonomic Grip·인체공학적인 손잡이)'의 줄임말로, 손의 구조까지 고려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잡는 부위의 촉감을 향상시킨 엠보싱 도트로 휴대의 간편성을 극대화했다.

이 어고 그립은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코카콜라 라이트 등 전 제품에 적용되며, 4월 500㎖·1.25ℓ 용기를 시작으로 6월말 1.5ℓ·1.0ℓ 순으로 제품의 용기라인업을 변경해나갈 계획이다.

편의점·할인매장·수퍼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500㎖ 가격은 1천300원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